

미래전쟁에 대비한 군 구조 개선방향

김 용 현*

목 차

1. 서론
2.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3. 미래전 양상
4. 이라크 전쟁 분석
5. 한반도 21세기 군사 패러다임 개념
6. 육군의 군사력 건설방향
7. 군 구조 개선방향
8. 결론

1. 서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컴퓨터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속적인 발전은 사회 각 분야의 변혁은 물론이고 전쟁양상 및 수행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군의 첨단전력에 대응하여 보

* 중군교 장교훈육대장,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연구위원

여주었던 무력함은 기존의 전쟁 패러다임 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충격이었다. 이는 과거 농경시대 군사력이 총포로 무장한 서구제국의 초기 산업화시대전력에 대항할 수 없었던 전장상황들과 매우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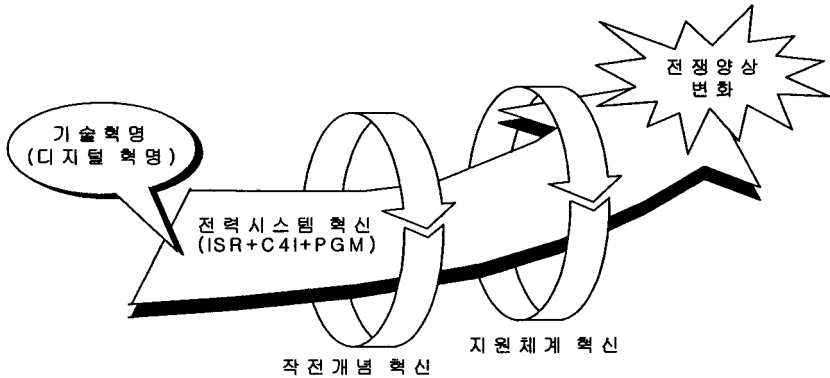
이라크전에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은 미래전장에서 국익을 보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군사능력을 확보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한반도의 특수한 전쟁양상에 대비함과 동시에 통일 후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해야되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장 최근의 이라크전에서 보여주었던 전쟁수행방식을 분석하고 이라크전훈을 기초로 미래전에서 수행될 전쟁양상과 한반도에서의 전쟁수행방식을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방향과 우리 군의 군 구조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오늘날 정보문명의 정보화시대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앞으로 전쟁 패러다임 혁명(Revolution in Warfare Paradigm)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인공위성과 공중 조기경보통제기(AWACS) 및 J-STARS 같은 우주·공중정찰·감시체계, 무인항공기와 레이더 같은 지상감시체계 등의 발전으로 정보·감시·정찰체계가 전쟁 수행의 핵심적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지구상 어느 곳이든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통신과 실시간 전송을 가능케 하는 광대역 대용량 전송체계의 발달로 지휘통제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밀 유도무기와 지능화폭탄 등

새로운 유형의 스마트 무기체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되면서 발견한 것은 모든 공격이 가능하고, 공격한 것은 100%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전투방식이 출현하였다. 이처럼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과 무기체계가 발전하면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차 전쟁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전망되어 다음과 같이 새롭게 파격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



<표1> 21세기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첫째는 **전장의 가시화와 정보의 공유화**이다. 전통적으로 전투 행위는 찾기(Find)와 숨기기(Hide)간의 치열한 게임이었다. 자신은 적이 발견할 수 없도록 숨기거나 자신의 의도와 행동을 적이 파악할 수 없도록 기만하였다. 적의 약점을 발견하는 즉시 기습적 공격을 감행하여 주도권을 장악하는 측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오늘날 각종 감시·정찰체계 등 정보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인해 찾기와 숨기기간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라크전에서 이미 확인하였듯이 정보력의 지배적 우세를 확보한 측이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정보의 지배적 우세를 확보하

1) 오윤석, 『21세기 한국군 군사력 건설방향』, 교육사령부, 2001, pp 6-10.

면 자신의 군사작전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반면에 적은 제반 군사작전의 수행을 방해받게 된다. 적이 정보를 지배하게 되면 자신의 장거리 타격체계의 위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기동화·스텔스화된 전력체계에 의한 공격에 아주 취약하게 된다. 미래의 전쟁에서는 항공·우주기술과 정보기술이 연결·결합되어 전장공간에 대한 주도적 인식이 가능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적의 위치 및 특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밀타격체계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배하고 전투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장공간을 주도적으로 인식하면, 적 위치 파악 → 공격시기 → 공격작전 수행 → 공격 피해평가로 연결되는 전투의 전 과정을 스마트하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된다. 특히, 우수한 정보력을 통해 표적의 신속한 선정과 가장 적합한 무기체계의 선택 및 공격피해의 실시간 평가가 가능하게 되면, 정밀 공격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장공간의 주도적 인식을 통해 적의 공격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보다 작은 규모의 군사력으로도 적의 예봉을 분쇄할 수 있다. 오늘날 적의 후방을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관찰·파악할 수 있는 감시·정찰체계와 무인항공기 정찰체계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체계와 AWACS 및 J-STARS는 광범위한 전장공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첨단 센서체계를 탑재하고 장시간 제공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는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상공에서 적의 위치와 활동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정찰체계에 의해 수집한 정보는 컴퓨터와 디지털 통신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융합·처리되어 지휘관과 야전부대들에게 분배된다. Gulf전 당시 미군은 의미있는 표적의 15% 정도만을 기후와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으나, 이라크전에서는 60%이상이 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이와 같은 추세로

2007년 무렵이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표적의 90%이상을, 2010년이던 전장의 가시화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처리용량 및 속도와 첨단 지휘통제통신체계의 전송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 대량의 정보를 전장의 모든 지휘관과 정보의 공유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패러다임(Network-Centric Warfare Paradigm)이 발전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 중심의 사고를 군사작전에 적용하여 전투요소들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즉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제반 전투요소들을 네트워크로 연결·결합시켜 전장정보를 공유한 가운데 새로운 전투력을 창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전력을 적시에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전쟁방식은 전장 전투요소들간의 효과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전투력 발휘효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네트워크는 전투요소들을 단순하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유로 전투능력이 향상된 각 전투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전투력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장거리 정밀교전의 보편화이다. 오늘날 전장의 가시화 및 정보의 공유화, 무기체계의 사거리 증가 및 정확도 향상으로 인하여 장거리 정밀교전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전장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었고 무기체계의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표적을 파괴·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양의 폭탄을 투하하여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단 한 대의 전투기의 정밀유도무기를 이용하여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는 시대, 이동 중에 있는 기계화부대를 우주자산을 이용하여 적을 일거에 마비·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예를 들면, 1943년도 1년 동안 미·8공군은 전략적 표적을 겨우 50회 정도 공격할 수 있었으나, 이번 이라크전에서는 연합공군이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이라크 내의 전략적 표적을 200회 이상 공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공격능력이 1943년보다 천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경에는 전쟁이 발발한지 수 분 이내에 500여 개의 전략적 표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대륙간 거리에 위치한 표적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이라크전에 비해 전략적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5,000배 이상 급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무기체계에 있어서 정밀성의 혁명으로 인하여 하나의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수백 또는 수십 대의 폭격기로 수천 톤의 폭탄을 투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단 한 대의 폭격기가 오직 한 발의 폭탄을 투하하여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라크전에서는 10피트 범위 내의 목표물을 90% 파괴시킴으로써, 무기체계의 정밀도가 최소 100배 향상되었다. 미래의 전쟁에서는 미사일이나 폭탄의 공산오차(CEP : Circular Error Probable)가 0(Zero)에 가까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첨단 센서체계와 전장관리체계의 발전으로 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정밀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적의 핵심표적들을 장사정 타격수단에 의해 보다 많이 정밀하게 공격·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해 지고 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무기체계의 사거리와 정밀도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특정 목표지역으로 운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주 중요하였다.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의 성능에 의해 전투의 승패가 좌우되었다. 미래에는 첨단 광역 정보체계와 장사정 스마트 유도무기 및 지능화 무기체계 등 원거리 정밀교전 능력의 확보 여부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정밀교전 능력이 전쟁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라크전에서 생생하게 입증되었다. 당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은 인공위성과 같은 감시·정찰체계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찰하여 실시

간에 표적을 파악하였고, 첨단 지휘통제체계를 통해 지휘관의 신속·정확한 판단을 보장하였으며, 정밀 유도무기로 목표로 하는 표적만을 정확하게 공격하였다. 감시·정찰에서 공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거의 자동으로 연결되었고 장사정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의 플랫폼을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기동시킬 필요가 없었으며 적의 핵심 표적을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다. 이라크의 야포는 대부분 최대 사거리 40km 정도였으나 다국적군의 각종 첨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수백~수천km 이상이였다. 예를 들면, 미군이 사용한 순항미사일은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저공으로 비행하여 1,500~2,000km나 떨어진 지역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명중·파괴시켰다. 이처럼 적의 무기체계 유효사거리 밖에서 전략적 목표를 명확하게 보고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근접 전투방식과 선형 전투방식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전장의 단위 면적 당 병력수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전장 1km²내에 배치된 병력수가 나폴레옹 전쟁시에는 4,970명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시에는 404명이었으나, 중동전시에는 25명, 이라크전시에는 2.4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2020~2025년경에는 그 수가 1~2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략적 중심을 직접 타격하는 전투가 보편화되고 적의 중심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전방과 후반의 구분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전장공간의 확장과 증첩이다. 전장공간이란 군사력이 운용되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전장공간은 표적을 포착할 수 있는 거리와 무기체계의 사거리에 의해 그 경계가 정해졌다. 지상군은 항상 적의 지상군과 전투를 벌였고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로 적의 해군 및 공군과 전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지상군

과 해군 및 공군은 각각 고유의 작전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전장공간도 분리·구분하였다. 그러나 감시·정찰체계 및 전장관리체계의 발전과 무기체계의 사거리 확대 등으로 인하여 전장공간이 지상·해상·공중에 이어 우주로까지 확장되고 육·해·공군의 전장공간도 중첩되어 왔다. 우선, 지상의 전장공간이 종·횡으로 확장되고 있다. 과거 깃발을 이용하여 부대를 지휘하던 시절에는 지휘관의 휘하의 장병들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지휘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공위성과 디지털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부대와 장병들을 지휘·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가속적인 발전에 따라 분산의 정도 및 거리에 관계없이 부대를 지휘·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장공간이 평면적으로 광역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직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장이 지상·해상의 2차원 평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항공기가 출현하면서 전장이 지상·해상에 이어 공중의 3차원으로 확장되었다. 오늘날에는 우주를 활용하는 센서체계와 통신체계의 발달로 인해 전장공간이 4차원으로 확장되었다.

3. 미래전 양상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기존의 전쟁 패러다임에서 첨단 무기중심의 전쟁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쟁의 수행방식과 양상도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시대의 전쟁양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전쟁(Information Warfare) 및 네트워크중심 전쟁(Network-Centric Warfare)등과 같은 새로운 전쟁형태가 발전되고 있다. 현대전의 역사와 성격은 핵무기의 등장, 항공기의 지속적인 발달, 정밀

유도무기의 급격한 발달 및 인공위성의 전쟁무기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속 급변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이라크전은 이미 미래전의 양상이 고도로 과학화된 정보전쟁과 미사일 전쟁으로 발전을 예고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미래전의 양상은 더욱 많은 변화가 예상되나, 기존의 재래식 전쟁 양상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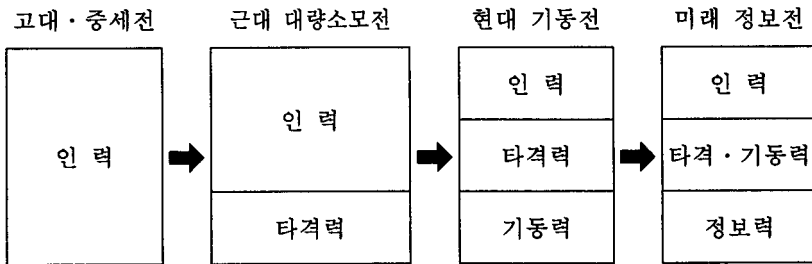
따라서 미래전 양상은 첨단 무기에 의한 전쟁과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이 혼합된 전쟁양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본 연구문에서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양상은 배제하고 첨단무기에 의한 미래전 양상은 아래와 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²⁾

첫째, 정보전이다. 정보전이란 미 국방성의 정의에 의하면 ‘정보전력을 이용하여 적의 지휘구조를 제거하고, 적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며 파괴시키고, 아군의 정보체계를 보호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장의 안개와 마찰(Fog and Friction)을 가장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으며, 손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知彼知己 白戰不敗)’라는 병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래의 전쟁은 정보력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은 <표2>에서 보듯이 인류역사상 전쟁에서의 중심전력은 고대의 인력 위주에서 근대의 타격력(화력), 현대의 기동력으로 변모하여 왔으며, 미래에는 정보력으로 대변되는 전장정보의 확보와 지휘통제 체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갖가지 정보·전자체계를 활용한 지휘통제전과 전자전, 사이버전, 고도의 첩보전 및 해커전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정보전의 형태는 사전 경고도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전쟁과는 다

2) 권용태, 「미래를 대비한 육군의 전력증강방향」, 국방부, 2003, pp 60-62.

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표 2> 전쟁양상 변화에 따른 전력중심의 변천



둘째, 항공 우주전이다. 항공 우주전이란 항공 우주력을 이용하여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엘빈 토플러에 따르면 ‘전쟁이 1차원의 전쟁(지상전) → 2차원의 전쟁(해상전) → 3차원의 전쟁(항공전) → 4차원의 전쟁(인공위성, 별들의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달리는 기동 전쟁시대(탱크, 전함) → 나는 기동 전쟁시대(항공기, 헬기) → 무인 자동화 전쟁시대(인공위성, 무인 비행체 등)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전은 항공력 초기단계와 같이 아직 그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상태이다. 미래전에 있어 우주공간이 지상·해상·공중에 추가하여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다. 우주공간의 인공위성과 같은 감시체계를 통하여 조기경보 및 정확한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며, 정밀 타격체계와 통합하여 운용될 것이다. 미래의 우주전은 전쟁이전에는 정찰위성을 이용하여 적을 감시하고, 전쟁이전에 적의 반응을 보기 위해 입자 빔무기, 전자폭탄 등을 탑재한 공격용 위성으로 적의 정찰위성을 파괴할 것이며, 전쟁 임박시 기습달성을 위해 적의 정보, 조기경보 및 감시위성 등에 전자전을 구사하여 무력화시키거나 파괴시킬 것이다. 따라서 항공 우주전이 전쟁의 주요영역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실시간 장거리 정밀타격을 위한 미사일전이다. 미사일전은 정보전과 마찬가지로 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PGM (Precision Guided Munitions , 정밀유도탄)전 이라고 볼 수 있으며, PGM은 전쟁 초기에 주도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전은 이라크전에서 이미 보았듯이 대량 살상을 피하면서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중요표적을 정확하게 파괴시키는 효율적인 무기체계임을 과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확한 식별 및 추적능력이 요구되며, 고성능 탐색기, 신호처리 기 및 유도 조종장치를 갖춘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계속 개량되어 원거리에서 발사되게 될 것이다. 또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험한 분야에서 로봇이나 무인기가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한 공격 및 기동, 예상하지 못한 기습, 변형된 전술 및 새로운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적을 혼란시키고 전쟁의 모든 수준과 표적을 동시에 공격하고 소모전을 피하기 위하여 전쟁의 조기종결을 위한 단기속결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하이테크 전쟁이다. 새로운 군사과학기술은 군사력의 조직·관리·작전운영면에서 많은 변화를 낳았다. 새로운 정보사회는 네트워크(Network) 조직, 즉 임무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팀워크로 이루어 질 것이다. 미래전의 종래의 전사에서 정보통신분야의 “고지식·고기술”을 지닌 “하이테크 전사”에 의한 전쟁이 될 것이며, 고지식·고기술의 전문가와 민간기술 및 네트워크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증대될 것이다. 하드웨어 측면을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군 통신 가운데 90%는 민간의 데이터 링크를 통한다고 한다.

다섯째, 전장이 가시화될 전쟁이다. 미래전에 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과 지휘·통제시설에서 파악하고 조치하는 상황 사이에 격차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현대의 발전된 정보기술을 통하여

지휘관은 전장에서 일어나는 적과 아군에 관한 상황을 실시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치하게 되고, 그러한 조치결과는 현장에 위치한 지휘관이나 전투원들에게 실시간에 정확하게 전달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과 이를 지휘하는 인원이나 기관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섯째, 인명중시의 전쟁이다. 유인 플랫폼은 인간의 보호와 인간에 의한 조작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은 물론 인명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차 무인화 플랫폼을 이용한 작전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은 무인비행체(Unmanned Aerial Vehicle)를 이용하여 정찰·감시를 수행함은 물론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무인로봇을 실전에 투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일곱째, 비선형·분산형 전투의 전쟁이다. 중추조직을 마비시키는 정밀타격 때문에 대규모 부대의 전투는 필요성이 감소될 것이며 미래의 병사 개개인은 GPS와 무전기를 갖춘 전투단위로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병력의 분산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기동을 통한 전력의 집중(Mass)보다는 전력의 통합에 따른 분산된 소부대 작전이 보편화되고 부대지휘의 양상도 예하부대에 지휘권을 위임하는 분권적 작전이 보편화될 것이다.

여덟째, 비대칭적 전쟁수행 방식의 전쟁이다. 미래전에서는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무기나 장비, 작전운영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전투력의 열세를 극복하는 다양한 비대칭적 전쟁수행방식이 발전될 것이다. 특히 전체적인 국력 및 군사력 측면에서 열세인 국가는 이러한 비대칭적인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커질 것이다. 현대의 과학기술을 잘 활용하여 기습적인 비대칭방식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가능성과 위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방식은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이다.

4. 이라크 전쟁분석

이라크와 미·영 간의 분쟁은 걸프전쟁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과의 지속적인 갈등과 특히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이라크 내 대량 살상무기제거를 위한 UN무기사찰단 활동을 방해하면서 악화되었다.

1998년 UN무기사찰단이 바그다드에서 철수한 후 미·영 연합군은 “사막의 여유”작전을 수행 대규모 이라크 폭격을 감행하였고, 그 후 비행금지구역을 둘러싼 산발적인 분쟁이 계속 되었으며, 9. 11테러 이후 미국의 “악의 축” 국가에 이라크가 포함되고 대량살상무기 포기와 후세인 정권 퇴진을 위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겠으나, 외형적으로 크게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첫째로 이라크의 대량살상 화생무기(WMD)개발방지 및 테러 지원차단이었다.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던 대량살상 화생무기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관련국들에 대한 지원 의혹이 계속 제기된 것에 대한 미국의 조치였고,

둘째로 중동지역 질서개편을 위한 교두보확보였다. 후세인을 제거하여 이라크 국민들이 겪고 있던 인권침해, 종교탄압, 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지인 이라크를 확보 중동지역 원유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셋째로 UN안보리 결의 이행을 통한 국제질서의 확립이 필요에서였다. 이라크는 UN결의안을 무시하고 '98년 이후 무기사찰을

거부하고 안보리 결의안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데 대한 미국의 특단적인 조치하였다는 것이다.

(가) 전쟁분석

이라크전쟁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미래전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이라크전은 전쟁임무의 대부분이 항공력에 의해 달성된 전쟁이었으나 27일간의 전쟁기간 중 항공력을 이용하여 이라크군의 지휘체계나 방공체계를 와해시키고 지상군을 무용화시킴으로서 전쟁을 마무리지었다.

둘째, 이라크전은 파괴 및 살상의 탈 대량화를 보여준 전쟁이었다. 이라크전에서 이라크군은 철저하게 많은 파괴 및 손실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인명피해는 비전투손실 36명을 포함하여 149명의 적은 인명손실로 전쟁을 종결시켰고 이는 걸프전 당시의 293명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셋째, 이라크전은 “소프트전략”의 위력이 “하드전략” 못지 않게 위력적임을 보여준 전쟁이었다. 당시 이라크군은 외형적으로 병력과 전투기, 항공기는 숫적으로 연합군 못지 않게 막강하였다. 그러나 이들 전력을 질적 수준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개전초기에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 파괴 및 손상되었다. 이라크군은 몸통만 비대하고 눈과 귀가 없는 상태에서 짧은 팔, 다리만 허공에 휘젓는 꼴이었고, 연합군은 천리안을 가지고 상대의 급소만 골라서 단 한번에 KO시키는 거인이었다.

넷째, 이라크전은 미디어 작전, 심리전이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전쟁이었다. 이라크전 발발 이후 실시간 전황보도 및 선전전은 자국민과 전세계 국가들의 지지가 좌우되었고 이라크군의 저항의지저하 및 미국의 사기양양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개전전 심리

전 전개는 미군 전력에 대한 이라크군의 공포가 확산되어 전쟁 전반적인 성과에도 결정적으로 좌우되었다.

5. 한반도 21세기 군사패러다임 개념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이 모두 21세기 정보시대를 맞이하여 군사혁신적인 전력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만이 현재와 같은 산업시대의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면, 한국의 미래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 기본적인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없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이익도 제대로 방호할 수 없지 않을까? 주지의 사실로서, 한국은 세계 최강국가들로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현재도 한국은 주변의 어떤 국가들보다도 국력 및 군사력이 매우 열세인데, 만일 주변국들이 전부 21세기형 전력시스템을 확보한다면, 한국의 상대적인 위상은 더욱 왜소하게 전락하게 된다. 더욱이 한국은 국토가 협소(22만km²)하고 전략적 중심이 매우 짧으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하고 해외 의존적 수출 경제 구조라는 매우 큰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21세기 지식·정보 중심의 전쟁양상에는 더욱 더 불리하게 될 수 있다.³⁾

한국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는 물론이고 미래 불특정·불확실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신 군사패러다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위협대비 군사발전 세트(set)와 미래 불확실성 위협 대비 군사발전 세트(set)가 중첩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국방투자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성을 제고 시킴을 물론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본다.

우리가 2개 set의 중첩부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① 장기적 차원

3) 권태영, 『21세기 전력체계 발전추세와 우리의 대응방향』, 2003, pp 136-137

에서 「첨단정보·기술군」을 구상하고, ② 기존의 무기체계기술을 가지고서도 전투력 발휘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군사교리, 작전 운용 개념, 조직편성, 교육훈련 방법 등을 우선으로 발전시키며, ③ 새로이 획득하는 전력시스템은 전술적인 차원보다는 전략적 차원(대량살상무기 대비책 등)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④ 플랫폼(Platforms)보다 정밀유도무기(PGMS)에 비중을 두고, ⑤ 하드웨어/하드 킬보다 소프트웨어/소프트 킬에 큰 관심을 가지며, ⑥ 특히 정보·감시 및 지휘·통제 능력(C4ISR=ISR+C4I)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매우 요긴한 전력이므로 이 분야에 필히 역점을 두고 제반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통일 이후 장기 차원의 불특정·불확실성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군사기본 패러다임은, ①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반도, 산악 지형, 협소한 국토, 짧은 중심, 수도권 밀집성 등)과 기후조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국력(경제력, 정보력, 기술력 등)의 상대적 위상, 정보사회의 변화와 시민의 안보의식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② 주변국이 한국을 위협의 상대로 생각하지는 않으나, 한국의 정당한 국익추구를 결코 방해, 손상시킬 수 없을 정도의 「첨단정보·기술군」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③ 첨단정보·기술군은 지·해·공정보가 균형·조화된 군대이며, 자주방위력을 기초로 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이고, 사회와 대등한 군의 전문·직업성이 보장된 군대이어야 한다. ④ 이러한 첨단정보·기술군은 우리사회의 발전된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국방예산을 생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창출되어야 하며, ⑤ 미래 유사시에 대비하여 고도 첨단기술에 의한 전쟁억제 잠재력을 고려한다 국방연구개발비를 획기적으로 증액시키고, 연구개발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⑥ 국제적인 통제하에 있는 전력분야는 당연히 국제적인 틀을 준수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6. 육군의 군사력 건설방향

육군은 공세적 방위전략 위주로 전략개념을 구상하고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미래 정보·과학전에 대비하기 위한 육군의 비전(Vision)은 “첨단·정예화된 Digital 육군 건설”이다. 첨단 무기체계로 장비하면서 소수정예화된 병력으로 현재보다 훨씬 고위력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육군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육군의 기본개념은 첫째, 병력위주 전력구조를 기술집약형 첨단전력으로 전환하여 정예화·고기능화하고, 둘째, 미래 디지털 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형 육군 부대구조를 발전시키며, 셋째, 북한 전략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와 미래전 양상에 동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핵심전력 위주로 발전시키면서, 저성능 재래식 전력은 과감히 도태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보화·과학화된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체계의 혁신 및 예산관리 효율화로 전력증강의 투자여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래 육군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는 앞서 논의된 전략적 평가와 미래 육군의 역할, 군사전력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한다.

“제한된 국방비”로 현존 북한 위협은 물론 잠재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이중 목적의 “더 강한 군사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안보 위협”만이 아닌 “군사력 건설능력”까지 동시에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군사력 건설 논의에 있어, 군은 “안보위협”을 중시하고, 군외에서는 “국가부담능력”한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한다.

국가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군사비 지출의 적정성 문제는, 민간부문에서 안보위협의 감소에 따라 경제·사회 투자 증대와 군사비 지출의 억제를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문에서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 보험료’ 논리로서 군사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런 점에서 방위에 충분한 전력을 확보한다는 “방위 충분성”의 이론은 안보위협과 국가능력에 대한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능력과 위협에 기초하여 군사력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채택하여야 할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⁴⁾

첫째, 정보우위(Information Dominance)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상대방보다 광역의 전투지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함에 있어 속도와 분량, 정확도 면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기동과 타격의 임무를 실시간에 자동적으로 분배·할당하며, 기동과 타격의 결과를 최단시간 내에 즉각 평가하여 임무수행을 반복함으로써 전투력의 압도적 승수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이다. 군사혁신의 요체이기도 한 “정보우위의 보장”은 재래식 전력과 미래 첨단전력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부대구조, 전장운영개념, 전력시스템, 조직편성 등 육군의 제반 구성요소를 구상하고 조직함에 반영시켜야 한다.

둘째, 시너지(Synergy)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시너지는 부대 단위간의 전투능력을 극대화하는 전력승수(Force Multiplier)를 뜻하는 용어로서, 여러 군중(Services)과 병과(Branches) 및 다양한 무기체계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전투를 수행함으로써, 그 각각의 고유한 능력을 단순한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큰 전체로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의 전력 운용체계가 “Sensor - Warnet - Shooter”간 자동연동체제로 발전하고, “신 시스템 복합체계(A New System of Systems)”에 의해 각 전투요소들 간의 향상된 상호작용을 통해 압도적인 전투

4) 육본, 『군사연구』, 2003, pp. 157-160.

력을 창출하여 전투력 효과를 집중함으로써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셋째, 고위력 장사정 정밀타격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차전에서는 “장거리에서(Long-range), 거의 동시에(Near-simultaneous), 다양한 발사대로부터(Omni-platform), 매우 정확하(Hyper-accurate), 최소로 노출되면서(Low observable), 상대의 방어능력을 무력화하고(Defense dampening), 전 사회를 불구화하는(Society-disabling)” 타격이 군사력 운용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의 전략적·작전적 중심이 위치하는 적지중심지역에 주전장이 형성되고 전쟁의 주된 노력이 집중된다. 이는 “병행공격(Parallel Attack)”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전쟁의 모든 수준(전략적, 작전적, 전술적)에서 적이 복구하거나 적응하는 것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적의 중심들(Centers of Gravity)을 동시 공격하여, 충격에 의해 적을 마비시킨다는 마비전의 중심이론으로 발전되고 있다.

넷째, 입체 고속기동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장차전에서 기동은 공격력과 충격력 못지 않게 자신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더욱 중요시 된다. Vision 2010에서 제시하는 미래전의 양상에 의하면, C4ISR 체계의 성능향상에 따라 전장은 광역화되면서도 전장의 불확실성은 감소되며, 원거리 정밀교전이 가능해 짐에 따라 손실을 극소화하기 위해 비접적·비선형전투양상으로 전개되고, 부대는 네트워크형 수평조직체계에 의한 임무수행의 유연성과 “초점화 군수지원(Focused logistics)”의 특성에 부합되게 위치상으로는 분산되면서도 전투력 발휘면에서는 효과의 집중을 기하여 전략·작전·전술적 수준의 전쟁을 동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의 타격을 회피하면서 분산하고, 적을 타격하기 위해 집중하는 미래전의 특성상, 임무 달성을 위해 부대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주도적 기동

(Dominant Maneuver)은 적보다 우위의 수평·수직적 고속기동능력으로 구현되며, 이는 전차원의 방호(Full Dimensional Protection)와 함께 전승의 필요 조건이 된다.

육군의 군사력 건설은 부대구조와 무기체계의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부대구조는 제대별 임무와 요구능력을 순차적으로 할당하며, 제대별로 확보가 요망되는 무기체계의 범주를 제시해 준다. 무기체계는 제대별 작전수행능력을 결정하고 임무수행 가능도를 결정한다.

부대구조는, 전장을 가시화하여 상대방보다 우위의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전장의 디지털화’와 전력구조가 복합시스템화 추세로 발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네트워크형 부대구조로 발전되어야 한다. 특히 적지중심 장악 및 적 중심 조기격파가 가능하도록 군단과 사단 위주의 구조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첨단 무기체계 및 장비의 전력화시기와 연계하여 병력을 단계적으로 감축, 부대 수를 조정하면서, 전략개념 구현이 가능하도록 핵심부대 위주 구조발전을 기본개념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육군은 미래 디지털화된 전장에서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단구조를 ‘한국형 디지털 사단’ 모델로 설정하여, 핵심전력 첨단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대의 규모는 작지만 전장 가시화로 상황인식 능력이 확대되고, 고위력 정밀타격 및 기동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된 첨단능력을 보유하게 함으로서,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정예화된 사단 구조로 변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및 정찰능력을 첨단화하고 디지털 전장 네트워크체계를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수집과 전장의 가시화를 실현시켜, 지휘관의 정확한 상황인식을 근거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지휘결심과 실시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동성 면에서는, 다양한 보병전투차량을 개발하고 중화기부대에 화기 탑재차량을 편성하여 부대의 경량화 수평적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고기동성 헬기를 확보하여 수직적 기동능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미래 디지털化 전장에서 각개 전투원은 “Sensor-Warnet-Shooter가 동시 연계되는 전투체계”로서, 적극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첨단화되어야 한다.

타격 능력 면에서는 신속한 진지변환과 생존성 보장을 고려하여 현재의 견인포 대신 자주화 포병을 추진하고, 탄약은 단순히 투발하는 “눈먼(dummy)포탄”에서 표적을 능동적으로 찾아 타격하는 지능형 포탄으로 발전시키며, 사격지휘체계를 자동화하여, 화력의 장사정·정밀성·고위력화를 달성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전투수행속도의 가속화에 부응하여 고위력 공격헬기 확보를 추진하여 적시적 화력지원능력을 증대시킨다.

전투근무지원분야도 구성요소의 디지털화를 통해 각종 현황과 자료를 자동으로 입·출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적시·적량·적소의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물론 이러한 미래사단 건설은 예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핵심부대 위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군단은 이러한 사단을 편조하여 운용하는 제병협동작전의 최상위 작전 및 전술부대이다. 군단은 실시간 정보수집이 가능한 정보부대 및 정보체계를 보유하고, 아군의 작전 템포를 유지하면서 적의 작전 템포를 차단할 수 있는 전투·전투지원·전투근무지원부대와 무기체계 및 장비로 편성되며, 특히 고도의 정밀성·치명성·파괴력을 갖춘 타격 수단의 운용과 작전지속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방호체계 및 전투근무지원체계의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하부대의 작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통제 및 지원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작전적 목표달성을 위한 임무수행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특정 군단은 전략예비로서의 임무와 국지분쟁 시에 투입 가능한 최적의 전투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국지분쟁은, 투입되어야 할 전쟁비용과 국제적인 중재노력에 의해 “완승을 위한 전면전으로 확대되기보다는 제한된 목표를 가진 첨단 정예전력 간의 치열한 단기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누가 최단시간 내에 첨단 정예전력을 투입하여 적을 압도하고, 적의 본격적인 전력 투입 이전에 제한된 목표를 달성하여, 정치적 협상에 임하느냐에 따라 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미국의 신형기동여단 구상이나 중국의 신속대응군, 러시아의 전략억제군 등이 이러한 미래분쟁양상에 주도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군 역시 첨단정예전력으로 무장된 “전략기동단”을 사전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전략기동군단”의 첨단전력들은 재래식 전력에 비해 정보·기동·화력·지휘통제 면에서 디지털화된 전력 복합체계로 구성되어 국지분쟁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주도권 장악 및 압도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고, 일부의 최신예 비행대대와 기동함대에 의해 증강된다면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또한 특수전 부대가 추가적으로 편조된다면 국제평화유지 활동 등 ‘전쟁이외의 작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이다.

미래 부대구조발전의 핵심은 우세한 정보력과 우월한 기동력, 고도의 파괴력, 강한 생존력으로 요약되며, 제반작전요소들은 정보수집자산과 각개전투원, 무기체계, 부대를 막론하고 네트워크형 전투수행체계로 연결되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디지털체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비록 가용예산이 제한되어 일부 부대를 정예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한된 분쟁영역에서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형

전력확보는, 우리의 군사전략을 구현함에 있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필수전력인 것이다.

7. 군 구조 개선방향

앞으로의 우리 군은 격변하는 세계질서와 동북아의 안보환경 그리고 미래전 양상에 부합되는 전투수행개념, 한반도의 안보환경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방향 등에 따라 군 구조의 방향도 바뀌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군 구조 편성(안)이 아니라 우리 육군이 가야할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명실상부한 한국군 주도의 한국방위를 위하여 작전지휘권을 환수해야 한다. 전시 작통권의 환수는 기본적으로 ‘상황’ 과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정치·군사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 당위성,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군사정책의 방향, 국민의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전시 작통권의 환수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준비로서 한국군은 자체적으로 부족전력을 확충하고 군 구조를 개선하며 지휘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미국과는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시기와 방법, 후속조치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작통권 환수 후 한국군의 지휘체계는 현 합참이 통합군사령부가 되고 그 예하에 각 군의 본부가 작전사령부로 재편되어 한국군이 독자적인 통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에 따라 현재 각 군 본부의 행정기능은 국방부로 이관하여 통합함으로서 군의 상부구조를 간편화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육군 지휘체계는 통합 군사령부 예하에 전방군단과 기동군단을 직접 지휘하는 '육군사령부'와 후방군단과 동원전력을 지휘하는 (가칭)향토방위사령부 등 두 개의 야전사급 사령부를 두는 체제로 한다. 이는 1999년에 활발하게 추진되었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계획과 유사한 개념이며, 육군사령부는 공세적 기동방어전략을, 향토방위사령부는 총력결전 전략을 뒷받침하도록 예하 부대의 구조와 작전체계를 정립하여 부대 기능상 일종의 고-저 혼합(High-Low Mix)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육군의 병력수는 정예군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더라도 비교적 조기에 예컨대 군단급 단위부대의 수를 줄이고 병력을 완편 이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합군사령부 예하에 전략군사령부와 정보전사령부를 창설한다. 이들 사령부는 3군이 합동으로 구성하여 전략 및 합동작전을 수행하고 필요시 각 군을 작전술과 전술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전략군사령부는 중·장거리 지대지 및 지대함 미사일을 주전력으로 하고 향후 지상고정형 레이저 방공포도 운용한다. 또한 정보전사령부는 정찰위성과 전략급 정찰기, 신호 및 영상정보수집 자산 등을 운용할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정보전을 수행한다.

넷째, 특전사 예하에 '디지털 여단'을 창설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한다. 디지털 여단은 전 병력이 앞에서 논의한 디지털 병사체계를 갖추고 전략 및 전술 C4I체계에 연동되어 특수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부대는 또한 육군에서 개발된 여러 신무기들을 가장 먼저 운용하는 일종의 시험부대 역할도 담당할 수 있으며, 특정한 군의 규격에 구애받지 않고 가용한 모든 첨단 기술을 군사 및 비군사 작전에 활용하는 가장 융통성이 크고 정예화된 특수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군단예하에 미래 디지털화된 전쟁에서 결정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래 보병사단”으로 개편한다.

미래 보병사단의 운용개념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육군의 무기체계 발전추세에 부합되게 작전형태별·전장기능별로 통합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첨단장비와 디지털화된 전쟁수행개념을 독자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체제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비전 2025의 미래 군 구조(안)인 각 군 사령부형으로 실행 후 대 국방부형 합동군제로 발전되는 육군의 장기발전(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이라크 전훈과 미래전의 수행양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보화·과학화된 전쟁양상으로 수행될 것이 자명한 일이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8. 결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는 우리가 원한다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킬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5,000년 역사가 남겨준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운명은 외세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는 엄연한 사실이 아닌가. 이제 또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민족은 공멸하거나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라는 말처럼 역사적으로 미

래를 대비하여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한 국가는 근대화 과정에서 힘으로 자국의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국가와 민족은 망국의 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도 하였다.

우리 군은 어떠한 상황과 위협이 대두되더라도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발발시 결정적 작전을 통하여 전쟁을 종결”시키는 기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근 주변국들은 영토, 해양자원, 환경문제 등의 문제에서 철저한 자국 이익추구 정책하에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혁신과 전력의 첨단화를 가속화하는 추세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는 국가는 조만간 군사적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비록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시점에서 보듯이 군사적 대치상황은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매우 소중한 동맹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동맹이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므로 시대와 상황이 변화되면 동맹의 본질과 내용도 자동적으로 변화된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루트웁(Luttwka)박사가 “주한미군은 최초부터 30~40년간을 주둔할 것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한국에 체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연장 여부를 검토해서 지금에 이르러 된 것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상황적 가변성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 전쟁양상은 과거의 대량 소모전에서 첨단 마비전으로 바뀌고, 위협의 형태도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국제범죄 조직의 대규모 테러, 밀입국, 국제적 환경오염, 국가적 재해·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이 점증하고 있으며, 이

러한 위협에 대해 미래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건설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본다.

우리 군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의 전훈을 거울삼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전 양상과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한국군 특성에 맞는 군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2003. 『국방백서』.
- 김정익. 2002. “신동북아 안보환경 평가와 주변국 지상전력 발전추세”. 「제3회 육군발전 심포지움」.
- 노 훈. 2001. “정보화 시대의 필수 군사력 소요 및 발전방향”. 「제2회 육군발전 심포지움」.
- 박창권. 2001. “미래전 대비 군사전략 개념 및 발전방향”. 「제2회 육군발전 심포지움」.
- 박후락. 1999. “미래전 어떻게 싸울 것인가 : 억제적 중심타격”. 「합동군사 연구」 제9집.
- 육군본부. 2002. 『군사용어사전』.
- _____. 2002. 『지상군 정예화를 위한 육군 지향방향』.
- _____. 2001. 『한군의 군사전략』.
- 이성출. 2001. “21세기 육군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국방저널」 제328호.
- 장명순. 2001. “미래전에서 보병의 역할과 발전방향”. 「제1회 보병발전 심포지움 논문집」. 육군보병학교.

Directions of Military Structure Improvement Preparing for Future Warfare

Kim, Yong-Hyun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computer network and software technology has not only changed various areas of the society, but also brought rapid change in the condition and the way of performing war.

Historical lessons learned from the war in Iraq tells that military capabilities corresponding to the new paradigms of war needs to be assured in order to preserve national interest and take victory in future warfare.

Thus, the performance in the latest war in Iraq, the estimated performance in future war and the performance of war in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put together and analyzed to indicate the direction our force should be built and the structure to be improved.

Under all circumstances and threats the military must defend our nation and territory. When war breaks out the military must perform it's basic duty to end war by decisive operations.

As the saying is "To preserve peace, prepare for war," continuous increase of military strength and improvement of military 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change of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weapon system is necessary

Key words : Science technology, peace, paradigm of war

